

공동구입·공동판매로 공존공생 (共存共生) 이다



파주 지부

취재 : 곽삼섭 기자

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주 지부가 멀지 않은 장래에 대한양돈협회의 중추적인 지부가 될 것으로 회원들은 물론 업계 주위에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통일로의 코스모스 길을 따라 40여분이 소요되는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에 소재한 파주지부에 도착했을때, 싸이클 경기가 열렸던 올림픽의 열기가 체식지도 않은 뒷 여운과 가을의 내음을 만끽하는 기온의 차가 한꺼번에 기자의 가슴에 와 닿았다.

1978년, 그때까지는 하나의 친목단체로 있던 파주지역의 양돈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생산자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양돈협회 파주지부를 창립하였다.

연륜으로 보면 전국 지부의 상위에 속하지만, 성장면에서는 그리 빠른 편은 아니다. 그러나 내실을 기하고 있는 지부로 정평이 나 있어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대단했다.

초대 윤록수, 2대 임인순, 3대 백

윤진, 4대 김기승, 5대 정덕영 지부장으로 지부 운영을 이어 오면서 파주지부는 성장의 기틀을 다졌고, 현재 6대 정성만 지부장이 지부 운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하여 연 200여두가 유통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를 「지부의 급진적 도약의 해」로 목표를 정하고 약품과 사료 등을 공동 구입, 관련 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지부운영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영을 맡으면서 종전 30여명의 회원에 불과하던 파주지부가 4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부 운영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를 「지부의 급진적 도약의 해」로 목표를 정한 파주지부는 파주지역 비회원 양돈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협회에 가입토록 하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실제 회원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수한 종돈구입은 양돈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파주지부 회원들의 종돈구입은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소, 국립종축장, 축협종돈장, 각 종돈장

아무리 타당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도 자금의 지원이 없으면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주지부는 지부 자금운영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몇가지 방법을 제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첫째, 회원들이 공동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얻어지는 이익중 3~5%를 제약회사로부터 협찬금을 받을 계획으로 파주지역 P동물약품사, G동물약품사와 접촉하고 있다.

둘째, 생산비중 지출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료비이다. 현재 회원들은 축협사료 월 1천5백톤(회

원 돼지 사육두수 3만두~3만5천두(대상)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익금은 매년 연말에 이익배당금으로 책정하여 각 개인의 출자로 대체하고 그중 일부분을 공제, 지부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의 경매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양돈농가에도 검정돈을 싸게 공급해야...

이 월 400두 이상 군납을 하고 있다.

첫째, 회원 확보를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지부순례 양돈강습회 개최를 당부했다.

현재 과주지역의 돼지 사육두수는 10만두를 상회하고, 200~250여두 규모의 양돈농가가 200여호나 되는데도 협회의 홍보부족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권유형식보다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가 급선부



또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의 사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타 사료회사와 교류관계를 가질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세째, 기계기구의 공동구입 작업이다. 한 예로 과주지부는 보운등을 G사, A사로 부터 가장싼 값으로 공동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한편, 이익금중 일부를 지부 운영자금으로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과주지부는 군납 출하를 하고 있어 주위여건상 양돈업을 하기에 알맞은 입지조건이었다. 이미 계획출하체계를 갖추었으며, 회원중 25명

한편 축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실시한 것은 오래 되었다. 공동구입·공동판매는 양돈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축협을 통한 공동출하는 회원들의 수익증대에 한 몫을 했다.

과주지부 회원들이 중앙회에 바라는 사항은 의외로 많았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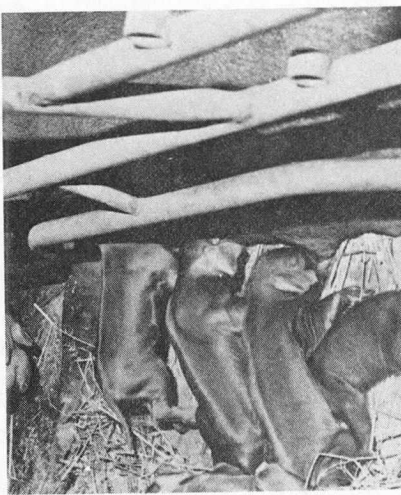
둘째, 자조금제도(Check off System)의 조기실현 문제였다.

양돈업을 안정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비홍보, 신제품 개발과 각종 연구·조사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조금제도가 조기실현 될 수 있도록 중앙회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지부나름대

로 회원 및 비회원을 중심으로 200여부의 자조금제도 실시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다.

세제, 도축장의 문제점을 양돈업의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서울 3개 도축장을 비추어 시기



상조라고 할 수 없는 시설문제, 부조리, 환경문제 등을 하루빨리 정비토록 하는 것은 양돈업을 1백년 앞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강조했다.

네제,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의 경제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양돈장에도 검정돈을 싸게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떤 단체든지 모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원의 비중에 따른 능력차에 의한 위화감과 갈등의식을 초래하는 것이다. 조직의 약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 상호간의 규모라든지 비중에 염두에 두지 말고, 서로 보완 유지관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규모가 크고 사양기술이 뛰어난 회원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회원들에게 기술제공 및 정보사항을 이전해야하고, 영세한 회원은 규모가 크고 사양기술이 뛰어난 회원들에게 배우려는정신자세를 견지해야...

적된 힘을 아낌없이 발휘케 될 것이다.

파주지부는 이러한 공존공생(共存共生)의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부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조직의 활성화를 기함과 아울러,



이다.

규모가 크고 사양기술이 뛰어난 회원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회원들에게 기술제공 및 정보사항을 이전해야 하고, 영세한 회원은 규모가 크고 사양기술이 뛰어난 회원들에게 배우려는 정신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현 사회는 혼자만의 독주에 의하여 발전할 수 없는 공존공생의 사회다. 서로 공존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때 양돈산업은 물론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축

미래의 양돈산업을 개척할 지부로 발돋움 하고 있다. *

파주지부 임직원 현황

- ▷지부장 : 정성만(앞골농장)
- ▷부지부장 : 지광웅(셋별농장)
- ▷총무 : 송영갑(미원농장)
- ▷감사 : 황탕선(대암양돈), 윤병억(청원농장)
- 이인형(통일양돈), 윤자영(소리농장)
- ▷운영위원 : 김만영(경미농장), 심봉룡(서부농장),
- ▷여직원 : 이윤미